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10. 사도행전

D.P.Joshep 2010-06-07 22:56:04

조회 41 스크랩 0

위에서도 말했듯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시즌 2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의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을 전한 성서입니다. 또한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 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능력이 있는 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말씀이 퍼져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들이 주가 되고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해 갑니다.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를 보여줍니다. 승천하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기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철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예루살렘 조금 더 나아가 유대 지역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지역 마지막으로 땅 끝 이방인들의 지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1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 자살을 택한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하는 데, 21절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님 공생애 사역 기간부터 지금까지 같이 다니고 사역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두 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맛디아가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공간위에 임하고 불같은 혀들이 보임으로서 각 사람들에게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각자 15개 지역의 각기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변화되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과 하나님의 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당당하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또한 그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에 대한 말씀이 있는 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부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후반부와 4장 후반부에서는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앓은뱅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간 앓은뱅이로서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베드로

와 요한은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역접 표현을 쓰면서,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의 이름의 강력함을 설명하는 데,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의 강력함을 전해주는 데, 어떤 위협이 있을 지라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들은 더욱 힘차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도 똑같이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재산의 반 정도만 드리게 되는 데, 그것을 부정직하게 제자들에게 고합니다. 이에 이 부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서의 '아간'의 사건과 비슷한 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죄악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 죄악의 싹을 단칼에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데,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을 구출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사도들에게 백성들을 향해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과 6장 7절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대한 파도를 볼 수 있는 데, 그 말씀의 엄청난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방해도 무너뜨리며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을 볼 수 있는 데,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의 원망과 서운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무리가 있는데, 예루살렘 토박이들인 히브리파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헬라파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중의 어려운 사람들인 나그네들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향한 구제사역에 약간의 질 다른 사역 때문에 공동체 내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임을 알고 제자들은 스데반을 포함한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콜라를 7명의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사역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은 육체적인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모이기에 힘썼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러가 가게 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나와 있는 데, 예루살렘 교회의 넘버원 집사인 스데반이 훗날 바울이 될 사울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순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 당하기 전에 명품 설교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데, 사울과 그 무리들은 귀신들린 모습을 보이며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8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게 됩니다. 8장에서는 스데반 다음의 집사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보이게 되는 데, 이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동경하게 된 마술사 시몬이 그를 따라다니며 그 능력을 물질로 사려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경고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나오며, 또한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에티오피아로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9장에서 훗날 바울로서 불리게 될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은 7장에서도 보았듯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향한 어긋난 사랑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누구인지를 몰랐다.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 누구이신지를 물어보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봉사가 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이 뜨이게 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는 여기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데, 그는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는 원수인 사울을 형제로 맞이해주는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고침 받은 사울은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데, 이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사울에게 이 시기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경멸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심 가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잠시 예루살렘에 머무르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간 그 존재는 잊힌다. 학자들은 사울이 이 기록에 없는 13년 동안에 예수님께 직접 '사도권'을 부여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는 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권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함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풍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그의 뛰어난 신앙으로 인하여 바나바는 사울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낙향한 사울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럼으로써,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목회를 하며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의 자칭 유대왕 '헤롯'은 유대인 사람이 아니고 '에돔'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무교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두려워했습니다. 그 때에 사도 야고보를 죽음으로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에 신이 난 헤롯은 베드로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던 헤롯은 주의 권능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